상추 1장 200원꼴 "쌈 포기한지 오래"

수박 1통 3만원 훌쩍…폭염·폭우로 과일·채소값 천정부지

이달말 이후에나 가격 안정 기대할 듯

"수박 한통에 3만원이 넘는 데 어떻게 사먹겠어요."(주부 이은숙씨)

"예전에 상추 살 때는 한 주먹씩 집었는데 이제는 한 장씩 세면서 사야 할 판이에요."(주부 이지영씨)

최근 대형마트를 다녀온 주부들의 푸념이다. 대형마트에서 1만7000원 하던 수박(9㎏)이 3만1800원에 팔리고 있는데다 상추도 100g(10장 정도)당 1890원으로 한 장당 200원을 육박하는 등 대부분의 채소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무더위와 국지성 강우가 이어지면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이 한 달 사이 급등했다. 일부 채소는 1년 전보다 값이 두 세배 가까이 오른 상태며 수박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농산물유통공사(aT) 가격 정보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애호박 소매가격은 개당 2000원으로 한 달 사이 두 배나 폭등했다. 한 달 전 700원 하던 상추(치마·100g)도 1300원으로 85.7%나 올랐다.

오이(취청·10개)와 마늘(깐마늘·㎏)도 35.1%, 25.0%씩 올라 1만원을 기록했으며, 수박도 한 달 사이 8000(47.0%)원이나 오르면서 2만5000원에 거래됐다.

채소류 도매가격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애호박 8㎏의 도매 값은 한 달 전 1만3000원이었지만 153.8%나 폭등하면서 3만3000원에 팔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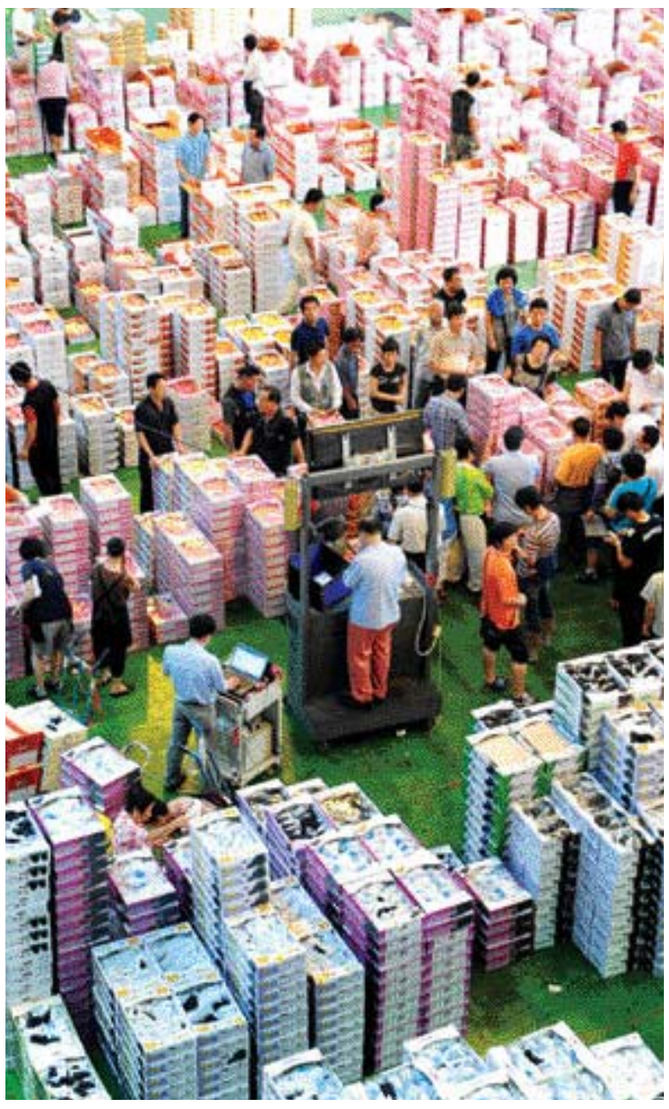
상추도 4㎏에 4만5000원으로 한 달 전(2만200원)보다 두 배 이상 올랐으며 시금치(4㎏)도 4만원으로 같은 기간 83.4%나 급등했다.

채소값이 급등한 이유는 이상 기후로 채소류의 생육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봄에는 잦은 한파로, 여름에는 폭염에다 국지성 강우까지 더해지면서 일조량이 부족해 대부분의 채소들의 생산량이 감소했다.

또 마늘·양파 등은 작황이 안 좋았으며 날씨 문제로 산지 출하 작업이 더뎌 오름세를 보였다.

농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8월에 폭염과 잦은 비가 겹쳐 채소류의 작황이 안 좋았다"며 "시금치·상추 등 야채들은 9월 말 이후에나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과일경매 열기 후끈 지난달 31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농산물공판장에서 도매상인들이 과일 등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양동시장 4인 17만5000원

추석 차례상 비용도 강세

올 추석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9.8% 많은 17만5000원 정도가 들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양동시장에서 과일·견과·나물류 등 차례용품 28개 품목 시세를 조사해 추산한 결과 17만5000원으로 지난해 15만9400원보다 9.8% 올랐다.

품목별로는 나물류와 견과류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소폭 상승하면서 육류도 오름세를 보였다. 나물류는 채소류가 잦은 비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호박(애호박 400g), 고사리(중국산 400g), 도라지(〃), 시금치(국산 400g)등 나물류 비용이 1만5500원으로 전년보다 80.2%나 올라 차례상 비용 상승을 견인했다.

또 밤(1㎏)·대추(360g)·곶감(5개) 등 견과류 비용도 1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45.5%나 올랐다.

물가협회 관계자는 "봄철 이상저온과 장마철 잦은 비와 폭염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추석이 임박하면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량은 부족해 차례용품의 전반적인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0일까지 선물·제수용 식품 안전점검

식약청·지자체 합동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기간 건강기능식품·한과류·벌꿀 등 제수·선물용 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백화점·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식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을 단속한다.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과대광고, 박피 근채류와 생선 등에 표백제·색소 등 유해물질의 불법사용 여부도 점검한다.

식약청은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 눈에 띄게 화려한 포장이나 광고가 요란한 제품은 구입할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4일부터 '양동 토요시장' 열린다

경매·유람단 공연 등 체험거리 제공

양동시장에 양동시장문화발전소가 생기고, 토요시장이 운영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난다. 1940년 시장설립 인가를 받아 광주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양동시장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양동시장사업단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광주시, 광주 서구청은 양동시장을 '2010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도심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양동시장 옥상에 건립된 '양동시장 문화발전소'에는 시장의 대표 상품인 홍어를 특화한 '홍애 레스토랑'과 베트남, 중국, 일본 출신의 이주여성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문화 식당이 들어선다. 시장을 찾은 고객과 상인들을 위한 공간과 전문식당가, 공연장, 파티장, 박물관 등이 조성되고, 3일부터는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인 '시장 속의 비엔날레' 전시회가 열린다.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사이에 위치한 중앙로에서는 '양동 토요시장'이 열려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요경매, 유랑단 공연 등이 함께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작소(工作所)를 만들어 시장 고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도 제공한다.

또 시장 상인들을 주축으로 풍물단을 구성, 양동시장의 주요 행사인 길놀이와 정월대보름 지신밟기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우체국쇼핑몰·콜센터 명절 20% 할인대잔치

팔도특산물 등 4930종…13일까지 경품행사도

우체국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체국쇼핑몰과 우체국콜센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최대 20%까지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우체국쇼핑 추석맞이 할인대잔치'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할인상품은 우리 농수축산물, 전통 민속주, 수공예품 등 팔도특산물 4930종이다.

우체국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로 보낼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에 10%를 더 할인해 준다.

할인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할인 1주차에 1회 5만원 이상 구매하거나, 2주차에 1회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250명을 선정해 무농약쌀, 홍삼절편 등의 선물을 준다. 2번 모두 응모하는 고객 중 3명에게는 LCD TV(47인치)와 로봇청소기를 증정한다.

또 할인행사 동안 누적 주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50명에게는 해산물세트, 200만원 이상인 30명에게는 신고배세트, 300만원 이상인 10명에게 굴비세트, 500만원 이상인 10명에게는 한우갈비세트를 증정하는 '다다익선 경품이벤트'도 진행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30돌 '윤선생 영어교실' 이벤트

4일 전남대서 영어 철자말하기 대회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 영어교실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지난달 31일 윤선생 영어교실에 따르면 고객감사 행사로 모두 1억원의 경품을 내걸고 '윤선생 영어숲 가을 신학기 페스티벌'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이 기간 '윤선생영어숲' 신규회원 중 6060명에게 삼성전자 넷북, 닌텐도 Wii,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또 윤스닷컴(www.yoons.com)에서 레벨테스트를 신청한 뒤 테스트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 중 333명을 추첨으로 선발, 여행상품권, 넷북 등을 선물한다.

영어 철자말하기 대회인 윤스스펠링비(Yoon's spelling Bee·) 행사도 전국에서 열린다. 행사는 개인전과 팀대항전으로 펼쳐지며 팀대항전 우승팀에게는 150만원 상당의 상품이 제공된다.

광주 대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에서, 서울,일산, 분당, 대전은 11일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지문적성검사, 페이스페인팅 등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센스넷북, 캐논 디지털 카메라, 닌텐도Wii Sports 등 경품을 제공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오늘 통계의 날

인구조사 성공 다짐

통계청이 9월1일 통계의 날을 맞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을 다짐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통계청은 1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6회 통계의 날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에서는 통계청 직원들이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등 미래를 예측한 자료와 개인 소망을 적은 편지를 캡슐에 담아 30년 뒤에 개봉하는 '통계역사 캡슐 담기'를 비롯해 통계 60년 기록영상물 상영과 퍼포먼스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연합뉴스